

전북교육감 · 전주시의회, 소통 물꼬 텃다

지역사회 소통 · 협력 위한 정책 간담회 갖고 교육계 현안 논의 · 해결책 마련 협력키로

지역 정치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초의원 의원들과 전북교육감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의 물꼬를 텃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전북교육청은 2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감-전주시의회 정책간담회'를 마련하고, 교육계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와 전북교육청은 2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마련하고, 교육계의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의회 김원주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운동장 흙먼지로 인해 주민 고충이 심하지만 교육청 어디에 호소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다"며 교육청의 정부 기능 강화와 소통 채널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2년 동안 환경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인조잔디를 깔거해왔지만 지금은 유해물질 발생이 거의 없어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 1·2동)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위탁교육기관으로 보내지는 학생이 많지만 정작 교육기관에서는 후원금을 따로 걷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서 교육감은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후 기본적인 교육이 소홀이 되고 있다"며 "위탁교육기관에 운영비 정도만 주고, 다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이국 의원(덕진, 팔복, 송전2동)은 전라중학교의 에코시티 이전 상황과 현 전라중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을 이전·신축하는 대신, 미래교육캠퍼스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 물었다.

서 교육감은 "전라중은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이고, 이전 결정시 약속했던 주차장 확보 문제 등에 대해 평가했

다"고 말했다. 또 "전주교육지원청을 옮기는 문제는 구두 약속 정도만 된 것으로 전북의 미래교육을 위한 첫 투자로 선도의 시설을 전주에 만들 필요가 있다"며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최명권, 박혜숙 의원(송전1동)은 각각 에코시티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와 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짚었고, 서 교육감은 "군산이나 완주보다도 먼저 에코시티에 가장 시급하게 고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주차장 개방 역시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답변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교육계와 소통의 소통의 물꼬를 텃 것 같다"며 "이런 소통의 장이 단발성이 되지 않도록 후속적으로 내용 확인을 비롯한 소통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키워드를 청렴, 민주, 인권, 화력으로 세우고 교육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소통의 기회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김재훈 기자

용머리 여의주마을 주민 거점공간 탄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 마무리... 11월 개관 예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펼쳐진 전주시 용머리 여의주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섰다.

전주시는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가 모두 마무리돼 오는 1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용머리 여의주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카페와 회의실, 임대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임대사무실의 경우 바느질·사진촬영·심리상담 등 마을주민이나 전주시민들 중에서 활동 참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마을카페 내부 공간은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될 용머리여의주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이달 중 가구 및 카페 집기 등을 구입 완료 후 오는 11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용머리 여의주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마을카페 운영을 위해 그동안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하는 바리스타 자격증과 꽃차, 베이커리 교육 등을 이수해 왔다. 지난해에는 '용머리여의주마을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을 설립해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준비에 힘써왔다.

삼규문 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여의주마을의 지속 발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신축된 거점공간이 마을주민이 주도로 운영되어 용머리 여의주마을이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아중호수 수변 잇는 순환 탐방로 추가 조성

전주시, 막힘없이 호수 전체 산책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전주 도심 속 친수공간인 아중호수 전체가 수변탐방로로 연결된다.

전주시는 아중호수 수변탐방로 중 일부 미조성된 북쪽 구간에 새로운 탐방로를 조성해 방문객들이 막힘없이 호수 전체를 산책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아중호수 탐방로 추가 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단절된 북동쪽 탐방로 약 93m 구간에 친환경 목재데크와 보행매트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직 탐방로가 조성되지 않은 293m 구간에 친환경 목재데크를 설치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시민과 관광객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행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변탐방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아중호수를 둘러싼 1873m 구간의 수변

탐방로를 조성했다. 또, 수변탐방로 주변에 봄·여름에는 수련과 부처꽃, 꽃창포를 감상하고, 가을·겨울에는 물억새 군락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습지정원 조성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삼규문 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아중호수 수변을 잇는 순환 탐방로 추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호수 위를 걸으며 아중호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대형판매시설 현장행정

롯데백화점 찾아 화재안전관리 위해 소방시설 실태 점검 등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일 완산 관내 롯데백화점 전주점(완산구 은고을로 2)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지난 9월 대전 현대아울렛 건축물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판매시설을 방문해 대형 인명피해 차단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롯데백화점 7층 점장실에서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롯데백화점 관계자 등 모여 업체현황, 피난계획 논의 및 본부장님 당부말씀을 시작으로 지하2층 점검장으로 이동해 건물구조 및 화재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입하장 안전관리 점검, 소방시설 실태를 점검했다.

김장수 서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판매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며 "지속적인 예방, 대비 훈련 등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호성동 지행당길에 회전교차로 설치

전주시 호성동 지행당길 교차로가 안전한 회전교차로로 개선된다.

시는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도비 1억4000만 원 등 총사업비 2억8000만 원을 투입해 지행당길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 외곽에 위치한 지행당길 교차로는 과속으로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개선이 시

급했던 곳이다.

회전교차로는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또, 차량간 상충 횡수가 줄어들고 사고위험이 감소해 교통 안전성이 높아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곳의 교차로를 회전교

차로로 개선했다.

배회곤 시 생태도시국장은 "지행당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정비되면 감속운행을 유도하고 보행자 안전성을 증대해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사기간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정기적금
- 일반·담보대출
- 공과금 자동이체
- 정기예금
- 정책자금 대출
- 인터넷·모바일 banking
- 산림조합 상호
- 조합원 가입
- 퇴비·고추 비료판매
- 임산물 재배지도
- 기계톱 면세유공급
- 벌초대행
- 임야경영, 컨설팅지도
- 나무시장 운영

부안군산림조합
063)584-3089, 581-3301